

AI&디지털 서비스 컴퍼니 혁신... 차세대 '국민주' 만든다

SK텔레콤 주식거래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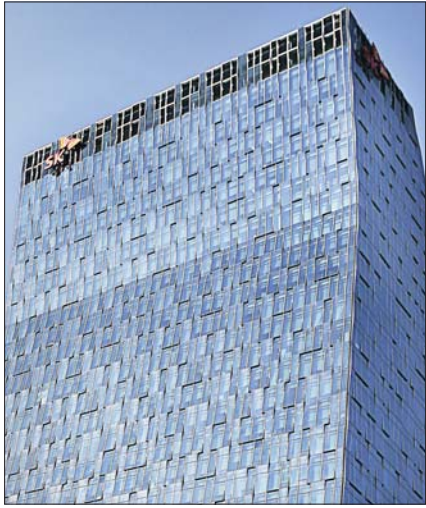
2025년 연간 매출 22조 목표
증권업계, 목표주가 40만원대 평가
"30% 이상 주가 상승 여력 충분"

통신 대장주 SK텔레콤이 29일 주식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증권업계는 인적분할과 액면분할로 인한 SK텔레콤의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인적분할을 통해 지난 1일 SK텔레콤과 SK스퀘어로 새롭게 출범했는데, 두 회사는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10월26일~26일)을 거쳐 29일 SK텔레콤, SK스퀘어로 각각 변경 상장, 재상장된다.

SK텔레콤은 올해 4월 인적분할 추진을 공식화하며, 미래 성장을 가속화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5월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8% 규모인 자사주 869만주를 사실상 전량 소각하고, 6월 SK텔레콤-SK스퀘어의 약 6대 4 인적분할과 5대 1 주식 액면분할을 결의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 가치 제고 행



SKT타워 전경.

/SK텔레콤

보를 이어왔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컴퍼니'로 탈바꿈해 2020년 15조원의 연간 매출을 2025년 22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며, SK스퀘어는 반도체·ICT 투자전문 회사로 출범해 현재 26조원인 순자산 가치를 2025년 약 3배에 달하는 75조원으로 키운다는 비전이다.

◆액면분할 효과로 몸집 가벼워져 '국민주' 등극 기대

SK텔레콤은 주주들의 투자 접근성과 기업 가치를 한차원 높이기 위해 인

적분할과 동시에 액면분할을 추진한다고 지난 6월 밝혔다. 액면분할이 유가증권 시장에 실제 반영되는 시점은 거래가 재개되는 29일이다.

SK텔레콤은 액면분할을 통해 소액 주주들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과 자회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는 투자자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주'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다.

액면분할을 통해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 1주는 액면가 100원인 5주가 된다. 기존에 SK텔레콤 주식 20주를 가진 주주가 있다고 가정하면, 액면분할로 인해 5배 늘어난 100주를 갖게 되며 약 6대 4 분할비율에 따라 SK텔레콤 주식 60주와 SK스퀘어 주식 39주를 각각 교부받게 된다.

◆증권가, "인적분할 이후 합산시총 30% 이상 증가 기대"

증권업계는 최근 SK텔레콤의 목표 주가를 40만원대로 속속 상향했다. 거래 정지 전 마지막날인 10월 25일 SK텔레콤 주가는 30만 9500원인데, 30% 이상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인적분할 이후 양사 합산 가치도 이전 시가총액 22조3000억원 대비 30% 이상 증가한 29조대로 상승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분할 재개 이후 양사 모두 양호한 주가 흐름을 기대하며, 기업가치는 SK텔레콤 16조9000억원, SK스퀘어 12조원으로 예상했다. 분할 비율에 따른 기존 시총은 각각 13조5000억원, 8조7000억원이었다.

안 애널리스트는 SK텔레콤에 대해 "통신 사업의 안정적인 캐시플로와 높은 배당성향을 기반으로 방어주로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통신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M&A도 적극 진행할 예정이며, 또 다른 성장동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SK스퀘어에 대해, "비통신 회사들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추가적인 투자와 M&A에 적극 나서며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예정"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남근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SK텔레콤과 SK스퀘어 시총을 각각 최대 16조원, 11조원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는 "SK스퀘어의 지향점이 지주회사

라기보다는 투자회사의 성격에 더 가깝다"며 "SK스퀘어의 경우, 분할 이후 통신업에게 적용된 외국인 지분한도(49%)가 없어지면서 수급 효과가 플러스될 것"으로 전망했다.

메리츠증권 정지수 애널리스트는 SK텔레콤 적정주가를 현 주가보다 29.2% 높은 40만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5G 가입자 성장과 MNO 사업 호조 지속, 잠재력을 갖춘 SK스퀘어와 시너지 기대가 예상된다"며 "2022년 연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5%, 14.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베스트 이승웅 애널리스트는 인적분할 후 합산 기업 가치를 28조원으로 예상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SK텔레콤은 인적분할 후 배당금을 기존 수준을 유지할 계획으로 적정 기업 가치는 17조원"이라며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와 상호보완적인 사업에 투자하고 원스토퍼, ADT캡스 등 자회사 IPO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으로 합산 시가총액은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SK스퀘어의 적정 기업 가치를 10조 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LGU+, AI 원격관리 '스마트 양계장' 실증

AI가 냉난방장치, 환풍구 제어 "국내 스마트팜 산업 발전 기여"

LG유플러스는 국립축산원 가금연구소, 전북대학교와 함께 육계·산란계의 정밀모니터링·지능형사양관리 기술을 실증하는 사업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양계농가는 가구당 육계 5만 6000수, 산란계 7만8000수를 사육하고 있지만 농가인구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기존 계사의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밀 사양(가축건강을 유지하고 유전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관리' 기술을 개발했다.

정밀 사양관리는 육계·산란계를 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내 스마트 양계 통합관리시스템 테스트베드에서 육계와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습. /LG유플러스

시간 정밀 모니터링하고, 여기서 수집한 데이터를 '스마트 양계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분석하는 기술이다. 우선 계사 내에 각종 센서와 통신, CCTV를 설치해 병아리와 닭의 생육환경에 맞는 온도·습도·암모니아(NH3)·이산화탄소(CO2) 등 공기질을 모니터링한다.

센서가 보내온 데이터를 인공지능(AI)

I)이 판단해 냉난방장치와 환풍구를 자동 제어할 수 있고, 사료와 물 공급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계사내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전문가에게 전달해 원격지원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정밀 사양관리 기술 외에도 ▲육계 체중 및 증체량 예측 기술 ▲실시간 산란계 폐사체 및 과산계(산란 능력이 정상군보다 낮은 닭) 선별 기술 등을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스마트시티사업담당 강종오 상무는 "육계, 산란계 정밀 사양관리 기술은 계사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농가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축사·돈사 등으로도 확대해 국내 스마트팜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114개 학교서 1000명 참여... 34편 수상

SKB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 시상

장관상에 '온라인·편지' 2편 선정

SK브로드밴드가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EBS 스페이스홀에서 제4회 '블러썸(Blossom) 청소년 영상제' 시상식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를 맞은 블러썸 청소년 영상제는 SK브로드밴드(기업), EBS(미디어), 연세대학교(대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사회공헌 얼라이언스 모델이다.

올해 영상제에는 '청소년 행복'이란 주제로 국내외 114개 학교에서 학생 1000여명이 참여, 총 185개 작품을 선보였다.

출품작 가운데 34편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대상 격인 장관상은 두 팀에게 돌아갔다. 온라인 학교폭력의 단면을



김동섭(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 SK브로드밴드 고객가치혁신담당과 최우수상(SK브로드밴드 사장상) 수상자들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 /SK브로드밴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그려낸 베트남 호치민시 한국 국제학교의 <온라인>이 교육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은따(은밀한 따돌림)'의 현실과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대구 혜화여고의 <편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전 신일여고(3편), 서울 여의도중, 대전 서일고, 밀양 영화고, 용인 동백중, 세종 아름답, 대전 송촌중이 최우수상(공동주최 기관장상)을 받았다.

/채윤정 기자

컴투스-다에리소프트,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맞손

NFT 분야 등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컴투스가 국내 유망 게임사와 손잡고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컴투스는 다에리소프트가 컴투스 그룹이 추진 중인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래 세상을 바꿀 핵심 기술로 급부상한 블록체인 및 NFT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합의했다.

먼저 컴투스는 다에리소프트의 대표작인 '사신키우기 온라인'에 컴투스가 독자 개발 중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탑재한 'C2X(가칭) 버전'을 글로벌 퍼블리싱할 계획이다.

2020년 10월 출시한 '사신키우기 온라인'은 '사신'을 성장시키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적들을 처치하며 전개되는 대한민국 대표 방치형 RPG이다. 국내 방치형·키우기 장르 게임 중 가장 높은 플레이 타임과 유저 사용량을 기록 중인 타이틀로, 블록체인 시스템과 결합해 더욱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형

태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컴투스는 블록체인 게임의 기회 노하우와 NFT 거래소 개발에 대한 기술 자문 등을 다에리소프트에 제공하게 된다.

다에리소프트는 '사신키우기 온라인'을 필두로 현재 서비스 중이거나 향후 예정하고 있는 게임들에 대해 C2X 블록체인 탑재를 적극 검토하며 강력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강준혁 기자 junhyuk@

U+알뜰모바일, '페이코 인증서' 도입

페이코 앱 통해 간편 인증

미디어로그의 알뜰폰 서비스 'U+알뜰모바일'이 NHN 페이코와 손잡고 이동통신업계 최초로 '페이코 인증서'를 도입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페이코 인증서는 국내 11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페이코(PAYCO) 앱을 통해 발급, 관리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다. 페이코 인증서는 공인 인증서가 폐지된 이후 정부가 사실 인증서에 정식 지위

를 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선정된, 국내 첫 전자서명인증사업자다.

U+알뜰모바일은 온라인 가입 및 개통 간소화를 위해 알뜰폰 업계 최초 네이버 인증서와 광학문자인식(OCR)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 페이코 인증서까지 도입하며 본인 인증 수단을 확대했다. 페이코 인증서는 신용카드나 공동인증서 없이도 페이코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